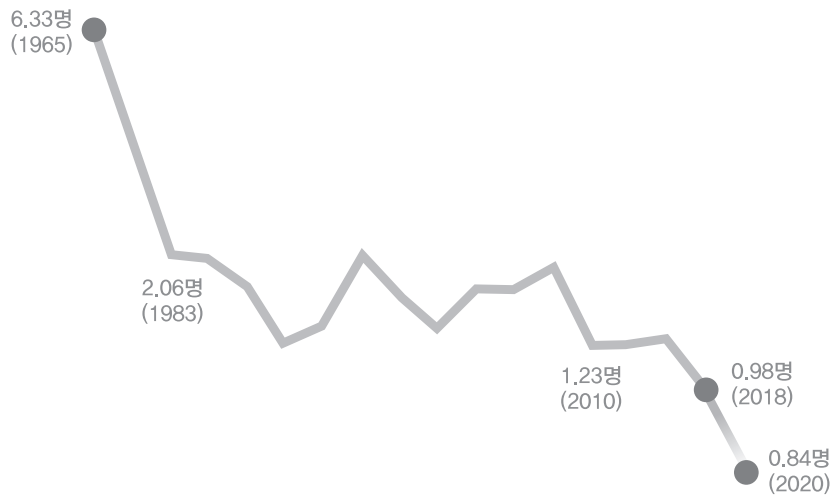


코로나 베이비, 출산감소 대안은 없나?



일시 | 2021년 8월 24일 (화) 오후 2시 30분

장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최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협력
단체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환경과 복지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법사회시민단체연합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 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 차

【축 사】 김 상 훈 국회의원	5
양 금 희 국회의원/저출산·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 공동대표.....	7
김 창 순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9

【주 제】 코로나베이비, 출생감소 대안은 없나?

【주 제 발 표 】

김 동 섭 교 수	11
(한림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 前 조선일보 논설위원/보건복지전문기자)	

【토 론 문】

박 기 남 위 원	31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 윤 진 교 수.....	37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 선 권 입법조사관	43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 충 환 과 장	53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부 록】 본 연구회 (연혁/공지사항/ 협력기관 및 단체) 소개.....	61
--	----

프로그램

1 부

사회 : 김 은 경

삼육대학교 겸임교수 / 본 연구회 사무국장

- 1) 개회선언
- 2) 국민의례
- 3) 인 사 말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 4) 축 사 김 상 훈 국회의원
양 금 희 국회의원/저출산·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 공동대표
김 창 순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 5) 단체기념사진 모든 참석자

2 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 주제발표

코로나베이비, 출생감소 대안은 없나?

.....김 동 섭 교수
한림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前 조선일보 논설위원/보건복지전문기자

○ 토 론

..... 박 기 남 위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 윤 진 교수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 선 권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 충 환 과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참관자 질의/응답

○ 총 마무리 발언김 동 섭 교수

축 사

김 상 훈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 서구 국회의원 김상훈입니다.

먼저, 「코로나베이비, 출생감소 대안은 없나?」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뜻깊은 행사를 주최해 주신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을 비롯해 깊이 있는 주제발표를 맡아주실 김동섭 교수님, 토론에 참여해주실 박기남 사무총장님, 이윤진 교수님, 박선권 입법조사관님, 김충환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는 인터넷으로 동시 송출되어, 저출생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뜻깊은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출생률이 매년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60년 6.0명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사상 처음 1명 미만대로 진입했고, 2019년에는 0.92명, 작년에는 급기야 0.84명대로 추락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아이가 한 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유엔인구기금이 발표한 국가별 합계출산율 순위에서 전세계 198개국 가운데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38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출생률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 수치 분석이 아닌, 복합적이고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아이를 낳아야 하는’ 국가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국가로 탈바꿈 해야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도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질 높은 교육과 안정적인 돌봄체계를 제공받을 수 있는‘초등 전일제학교 도입’, ▲육아 휴직 사용률 제고를 위한‘육아휴직 급여 현실화와 유연근무제 활성화’, ▲육아휴직 급여 대상이 아닌 부모들에게도 양육초기에 필요한 소득과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한국형 부모보험 도입’등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진행될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참석 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양 금 희

국회의원/ 저출산·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양금희 의원입니다.

얼마전 8월 19일, 감사원이 통계청에 의뢰하여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에 예상된 대한민국 미래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100년 뒤 인구를 처음 추계한 이번 감사 결과, 서울 인구는 4분의 1토막으로 줄어들고, 전국 지자체 96%는 소멸 위험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의 국가별 합계출산율에서 한국은 2년 연속 198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즉, 한 여성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는 0.8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미국도 출산율 문제로 비상입니다. 코로나에 따른 사망은 급증한 반면, 출산율이 올해 처음 0명대로 진입하여,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구 감소는 미국 경제에 대공황과 세계금융위기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주제가 ‘코로나베이비, 출생감소 대안은 없나’입니다.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는 ‘출산 감소’라는 또다른 쇼크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베이비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예측도 당초 있었지만,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저출생·고령사회’ ‘인구절벽’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정책적으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출생율과 혼인율이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동시에, 고령사회로 전환되는 속도 또한 빨라지면서, 경제성장 둔화와 복지부담 증

가 등 국가 전체의 거시적 제도 변화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전체 인구에서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커지면 노동력과 소비가 늘면서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소위 ‘인구보너스’(Demographic bonus), ‘인구배당효과’가 나타나지만,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고 경제 성장은 지체되는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가 됩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은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 주도 출산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람 중심 정책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이 짊어졌던 출산과 양육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원하지 않는 것은 불투명한 미래와 불안정한 사회환경 때문입니다. 일자리, 주거, 육아, 교육 등 분야별로 걸림돌이 넘쳐납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난제입니다.

안정된 직장과 주거가 마련되고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만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 모두에게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정책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저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김 창 순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반갑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김창순입니다.

오늘 코로나19와 출생률 문제가 논의되는 뜻깊은 자리에 축사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이정숙 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한 관점에서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실 발표자와 토론자 분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전국 250개의 시·군·구 전체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1명이 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위험과 경제악화 등으로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대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부양비율이 증가한다면 우리사회는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상당한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구변화 대응을 논의할 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소득 불안을 줄여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불평등의 요소를 하나씩 해소해 나가는 것이 저출생문제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이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모색하고, 사회적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와 출생률 감소라는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출생률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뜻깊은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선진복지사회연구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제 발 표]

코로나베이비, 출생감소 대안은 없나?

김 동 섭 교 수

한림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前 조선일보 논설위원/보건복지전문기자

코로나 베이비, 출생 감소 대안은 없나?



김동섭

한림대 보건과학대학원 교수

대형 재난 신화(Myth): 출생 붐 or 출생 감소



- 출생률 증감은 대형재난(코로나) 발생 9개월 후 판가름
- 2020년은 10월이나 11월부터 2~3개월분만 반영
- 2021년부터 코로나 베이비 본격 출생

‘코로나 세대’ 용어 등장



“감염병 유행은 출생 증가로 연결”
강제된 부부 동거는 출생 증가로 이어질까

특성:

재택근무,자가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
사회 불안, 업소 영업시간 단축 같은
감염병 재앙속에 태어난 세대

**Prediction: There will
be a minor baby boom
in 9 months, and then
one day in 2033, we
shall witness the rise
of THE
QUARANTEENS.**

코로나 베이비: Coronial , Corona Generation

- 코로니얼(Cornial):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동안 잉태되거나 태어난 아이들을 지칭하는 명칭. 주로 2021년생.
- Corona+Millennials로 밀레니엄 시대에 성장하는 밀레니얼(Millennial) 칭함.
- 코로나 세대(Corona Generation)
- 코로나 격리 10대 (Corona Quaranteen)
- 코로나 키드(Corona Kid)



대형재난 신화(Myth): 9개월 후는 베이비 붐?

- 1918년 스페인독감 유행: 최대 5000만명 사망
 - 출생아: 미국 13%, 스웨덴 8% 감소
 - 유아와 젊은이 사망 증가, 노인은 상대적 사망 적음
- 1965년 미국 뉴욕 대정전사태 이후 많은 지역 정전사태, 허리케인, 눈보라, 테러공격 등 재난 시 베이비 증가 가능성 언론에 거론
 - 베이비붐(baby boom)대신 일시적 베이비 블립(baby blip) 가능

전후 베이비 붐 시대(인구 변화 최대요인)

- 미국: 1946~1964년. 7600만명 탄생
 - 1946년 출생아 1월 22만2721명→ 10월 33만949명 증가.
 - 1945년보다 20%증가한 340만 탄생, 1947년 380만명, 1952년 390만명 등
- 영국: 1차세계대전(1914~1918)과 스페인독감(1918~1919), 2차세계대전 후 베이비붐(1946~1965)

캐나다: 1947~1966년(820만명)

일본: 1947~1949년(806만명)

호주:1946~1961년(400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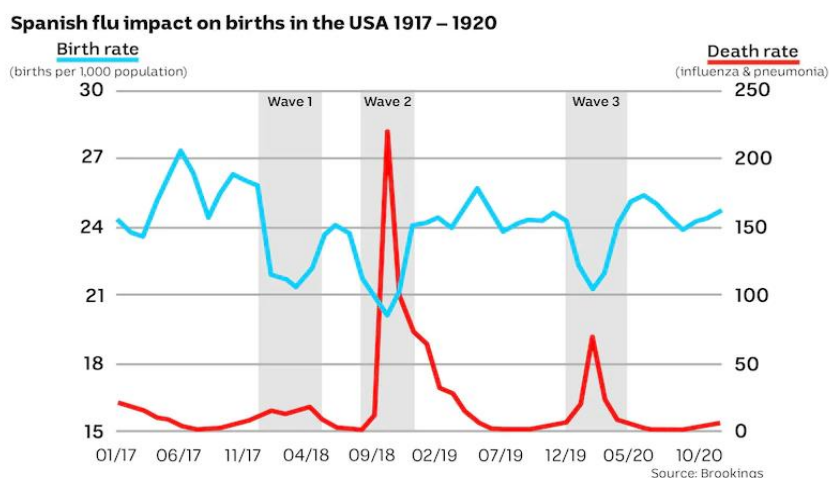
뉴질랜드:1945~1970년대초반

한국: 1955~1963년(820만명)

감염병과 한국의 출산 변동은

	출생아	혼인건수	추가변수
사스(2003.4~7)	2004년 -3.7% 2005년 -8.0%	2003년 -0.8% 2004년 2%	2003~2004년 카드대란으로 경제 위기
신종플루 (2009.5~12)	2010년 5.7% 2011년 0.2%	2009년 -5.5% 2010년 5.3%	베이비부머 2세대가 30세 진입으로 혼인여성 증가
메르스 (2015.5~12)	2016년 -7.3% 2017년 -11.9%	2015년 -0.9% 2016년 -7.0%	3포 세대 등장 등 결혼 출산 기피 심리 등장, 취업난
코로나(2020.1~)	2021년 -3~4% 예상 2022년 감소예상	2020년 -10.7% 2021년 -13.1%(5월까지)	집값폭등으로 혼인 어려움. 경제위기로 취업난

외국의 감염병과 출산: 스페인독감



외국의 감염병과 출산: 사스, 지카,에볼라

Pregnant pause

Birth rate, change from seasonal average, %

SARS (Hong Kong,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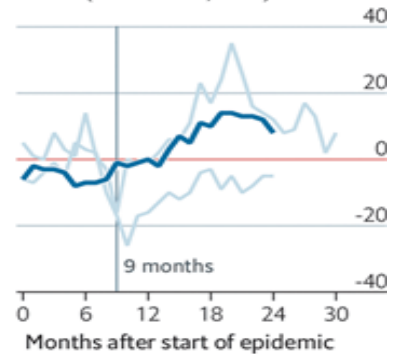
Source: Institute for Family Studies

The Economist

Zika (Brazil,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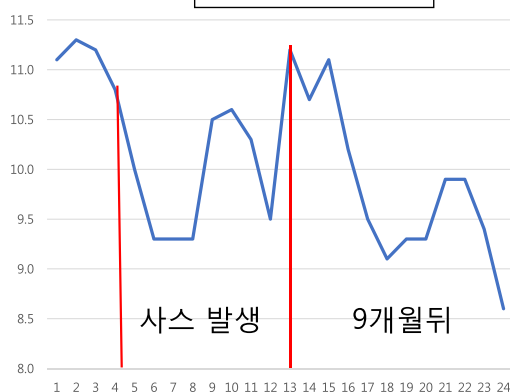


Ebola (West Africa,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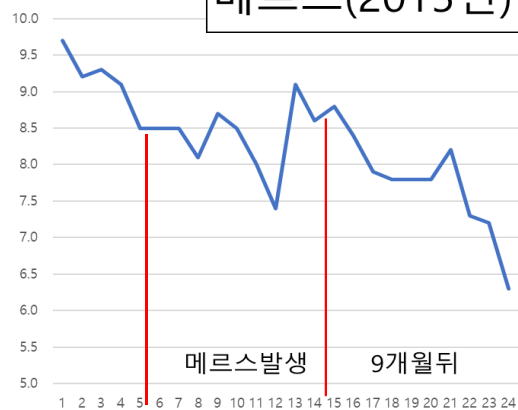
국내 감염병 발생과 출생 감소

사스(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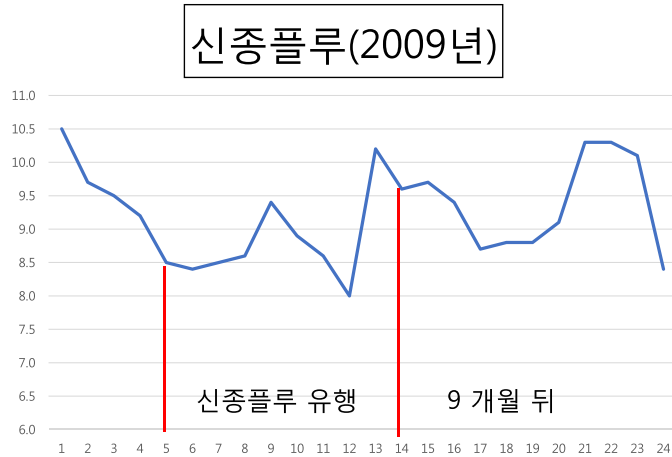
추가변수: 2003~2004년 카드대란 경제위기

메르스(2015년)



추가변수: 취업난, 연애·결혼·출산 3포 심리 대두

국내 감염병 발생과 출생 증가



추가 변수:

-베이비부머 2세대
(1979~1982년생) 등장

-가임기 30세 전후 여성 증가

-출생아 2009년 44만명에서
2012년 48만명으로 3년간 연속
증가

국내 감염병 발생과 출생 감소



추가변수:

-코로나 장기화로 혼인 지연 급증,
2~3년간 저출생 예상.

-집값 폭등과 취업난으로 젊은 세대
결혼하기 어려운 여건

-가족계획 완화세대(1991~1995년생)
등장. 30 세 전후 가임 여성 증가

-수년간 출생감소 뒤 출생 증가 예상

월	2019	2020	증감율
1	30,271	26,679	-11.9%
2	25,710	22,768	-11.4%
3	27,049	24,206	-10.5%
4	26,104	23,321	-10.7%
5	25,299	22,861	-9.6%
6	23,992	22,121	-7.8%
7	25,222	23,016	-8.7%
8	24,371	22,420	-8.0%
9	24,090	23,519	-2.4%
10	25,613	21,879	-14.6%
11	23,727	20,044	-15.5%
12	21,228	19,576	-7.8%
합계	302,676	272,410	-10.0%

코로나 발생 9개월 뒤 10월 이후 출생아 급감

① 2020년 4분기 출생아 급감

	2020년p	2020년p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출생아 수 (명)	272,410	73,652	68,303	68,955	61,499
전년(동기) 증감률(%)	-10.0	-11.3	-9.4	-6.4	-12.9

행정구역	20출생아 (명)	19 대비 출생 증감	2020(10~12) 전년 대비
대구광역시	11,200	-15.3%	-25.1%
제주특별도	4,000	-11.5%	-18.7%
부산광역시	15,100	-11.6%	-18.6%
경상남도	16,800	-12.5%	-18.1%
울산광역시	6,600	-12.1%	-17.7%
인천광역시	16,000	-13.3%	-15.9%
경상북도	12,900	-11.0%	-14.2%
광주광역시	7,300	-12.5%	-13.6%
세종특별시	3,500	-9.2%	-13.6%
서울특별시	47,400	-11.6%	-13.2%
충청남도	11,900	-9.7%	-13.0%
전국	272,400	-10.0%	-12.9%
전라남도	9,700	-10.0%	-12.9%
대전광역시	7,500	-11.0%	-9.6%
전라북도	8,200	-8.9%	-8.7%
경기도	77,800	-6.5%	-8.4%
강원도	7,800	-5.3%	-7.4%
충청북도	8,600	-7.8%	-7.0%

2020년 10~12월 전국 각 시도 일제히 출생 감소

① 출생 급감: 코로나 악화된 대구, 부산, 경남, 울산 중심으로 출생아 급감

② 출생 감소 미미: 코로나 유행이 덜한 충북, 강원, 경기, 전북은 출생 감소 미미

2021년 출생아 변화 ③출생아 감소 폭 감소 지역

①출생아 증가로 전환한 지역

행정구역	2020(1~5)	2021(1~5)
세종특별시	-10.3%	0.6%
광주광역시	-12.1%	8.3%

②출생아 감소 악화된 지역

행정구역	2020(1~5)	2021(1~5)
강원도	-6.3%	-7.4%
전남도	-11.4%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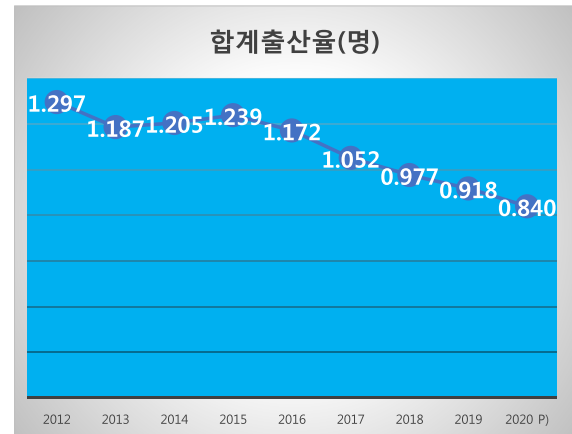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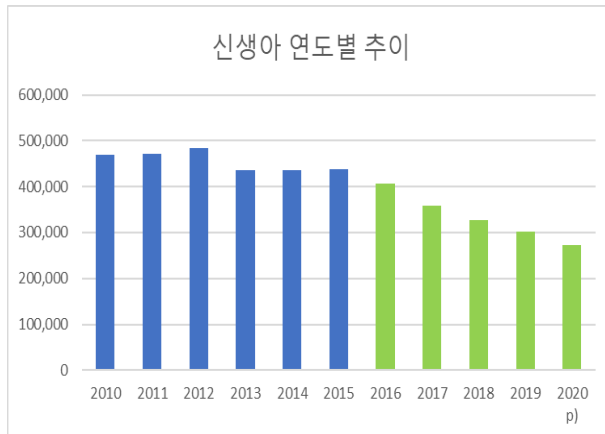
행정구역별	2020(1~5)	2021(1~5)
경기도	-7.4%	-0.5%
대전광역시	-13.3%	-0.7%
서울특별시	-12.6%	-1.9%
제주특별자치도	-11.3%	-3.4%
전국 평균	-10.9%	-3.7%
충청북도	-10.5%	-4.1%
부산광역시	-11.9%	-5.4%
대구광역시	-14.1%	-6.3%
경상남도	-13.9%	-6.7%
전라북도	-10.2%	-7.1%
인천광역시	-14.9%	-7.7%
경상북도	-10.4%	-7.8%
울산광역시	-12.2%	-8.2%
충청남도	-10.7%	-8.6%

2020년 한국의 저출산 현황

-2020년 출생아 27만2410명, 합계출산율은 0.84
 -조출산율 5.3명으로 사상 최저 기록
 -출생아는 전년보다 10%(3만266명)감소
 -전국 각시도 일제히 출생아 감소는 이례적
 -혼인건수 1970 년이래 최저

- 출생아 감소는 2015년 이래 5년째 감소
 - 합계출산율은 3년 연속 1명 미만 추락
 -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
 - 가임 여성(15~49세) 계속 감소
 - 만혼, 만산의 지속
 - 비혼자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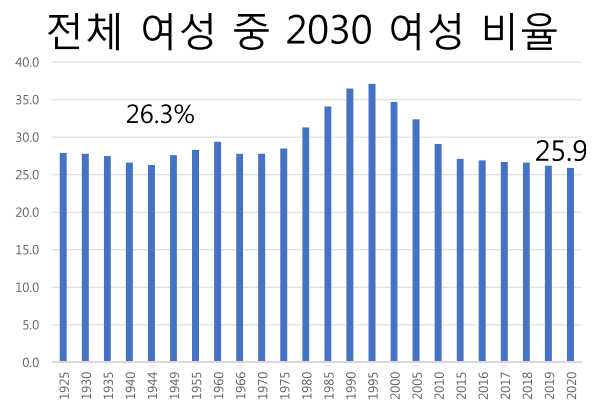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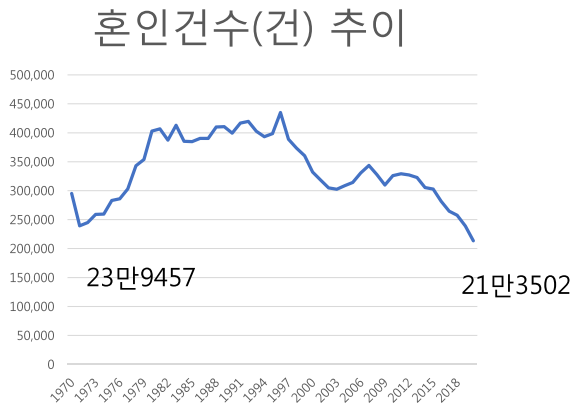
2015년 이후 5년째 하락중인 신생아 3년째 출산율 1명 미만으로 추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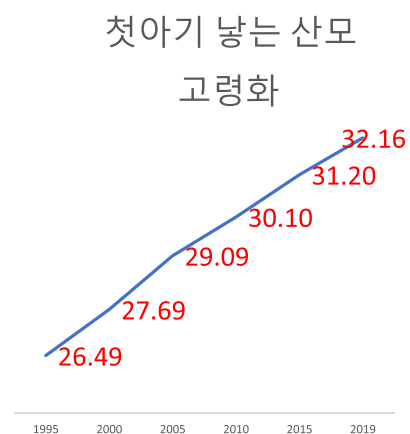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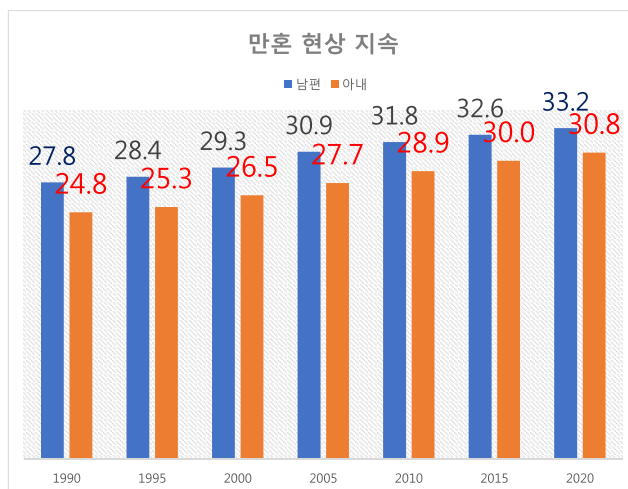
한국, 합계출산율 외국보다 급감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추이	5년간 감소 비율
한국	1.24	1.17	1.05	0.98	0.92	-0.32	-25.7%
러시아	1.78	1.76	1.62	1.58	1.5	-0.27	-15.7%
영국	1.8	1.79	1.74	1.68	1.65	-0.15	-8.3%
미국	1.84	1.82	1.77	1.73	1.71	-0.14	-7.1%
캐나다	1.56	1.54	1.5	1.5	1.47	-0.09	-5.8%
네덜란드	1.66	1.66	1.62	1.59	1.57	-0.09	-5.4%
프랑스	1.96	1.92	1.9	1.88	1.87	-0.09	-4.6%
북한	1.92	1.92	1.91	1.9	1.9	-0.03	-1.0%
덴마크	1.71	1.79	1.75	1.73	1.7	-0.01	-0.6%
베트남	2.01	2.03	2.04	2.05	2.05	0.04	2.0%
독일	1.5	1.6	1.57	1.57	1.54	0.04	2.7%

2020년 한국 특징: 지난 50년간 최소 혼인 건수 전체 여성 인구 중 2030(가임)여성 비율 최저



혼인 첫아기 낳는 연령 30대 중반으로



여성 미혼율 급증

	2010년	2015년	증가율
20~24세	96.0%	96.8%	0.8%
25~29세	69.3%	77.3%	11.5%
30~34세	29.1%	37.5%	28.9%
35~39세	12.6%	19.2%	52.4%
40~44세	6.2%	11.3%	82.3%
45~49세	3.3%	6.4%	93.9%

도대체 우리는 아기를 얼마나 안 낳는가.
한국과 인구 비슷한 국가의 출생아

국가명	인구(천명)	연간 출생아	합계출산율 (2019)
영국	67,886	64만370명	1.65
프랑스	65,274	69만6900명	1.87
탄자니아	59,734	214만5193명	4.83
이탈리아	60,462	41만7614명	1.27
남아공	59,309	105만1311명	2.38
케냐	53,771	152만명	3.42
콜롬비아	50,883	64만2660명	1.79
한국	51,269	30만2676명	0.92

한국의 '코로나 베이비 세대' 등장 배경

코로나 베이비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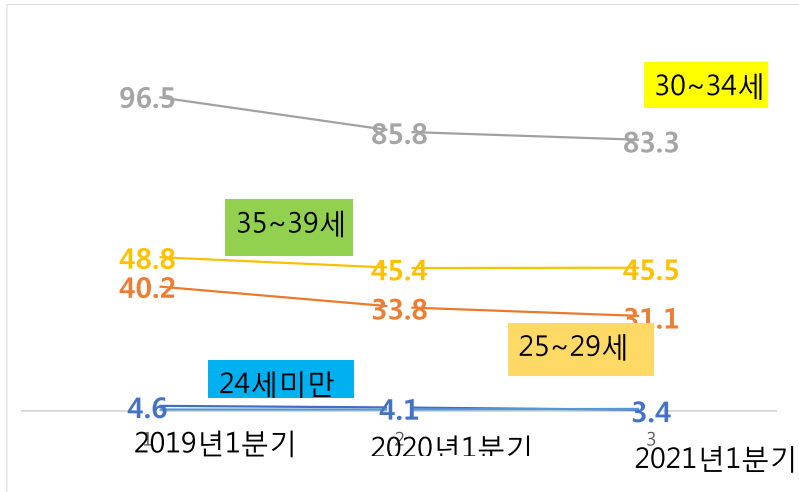
- 합계출생율 1명 미만인 한국에서 코로나 유행시대에 태어난 세대
- 격리 정책으로 결혼 연기하는 첫 세대
- 세계 최저 출산율의 20만명 세대로 기록될 전망

- ①3대 혼인 어려움:최악의 취업난, 부동산 값 급등, 비혼 심리 확산
- ②여성 인구 중 2030세대(가임) 여성 역대 최저 비율
- ③코로나 격리, 모임금지로 혼인 건수 역사적 첫 감소.
- ④혼인 감소로 코로나 유행 끝나도 수년간 출산 감소 후유증 지속 예상

코로나 겪은 아시아 국가 2020년 출생아 급감

국가	전년과 비교
홍콩	-18.5%
중국	-14.8%
한국	-10.0%
대만	-9.2%
마카오	-7.3%
일본	-2.8%
싱가포르	-1.8%

코로나로 여성 연령별 출산 달라진 것은



①24세미만: 출산 크게 줄어

②25~29세:혼인 연령 상승에 따른 혼인 감소, 혼인 연기와 기혼자들의 임신 연기,중단

③30~34세:혼인 연기와 임신 연기, 중단. 미래의 출산 포기 이어질까

④35~39세:코로나 불구 출산 의지 높아

코로나로 하루 평균 출생아 줄어들어 감소 완화 내년 출생 감소 막기엔 역부족

월별 하루 평균 출생아 추이

	2019	2020	2021
1월	976	861 (-11.9%)	807 (-6.3%)
2월	918	785 (-14.5%)	766 (-2.4%)
3월	873	781 (-10.5%)	776 (-0.6%)
4월	870	777 (-10.7%)	761 (-2.1%)
5월	816	737 (-9.6%)	711 (-3.5%)

-급감했던 작년 10~12월 출산 줄어들어 완화 추세

-올 3월 출생: 작년 3월보다 0.6%감소. 인구감소 시작된 2015년12월 이후 최저 감소

-5월 하루 출생아 711명:2020년 5월보다 3.5% 감소

-회복 기미 없어 내년에도 출생 감소 못 막아

외국의 올 출산 현황 ①출산 감소(Baby bust)

영국 1분기 출생 현황

연도	출생아	전년비교	전년 증감율
2015	166,442	-2,825	-1.7%
2016	169,733	3,291	2.0%
2017	164,175	-5,558	-3.3%
2018	158,917	-5,258	-3.2%
2019	154,839	-4,078	-2.6%
2020	152,521	-2,318	-1.5%
2021	146,574	-5,947	-3.9%

이탈리아 1~3월 6.4% 감소
스페인 1~5월 6.3% 감소
싱가포르 1~6월 3.4% 감소
일본 1~3월 9.5% 감소

외국의 올 출산 현황 ②출산 증가 (Baby boom)

네덜란드: 2월부터 출생 급증(단위 만명)

	2018	2019	2020	2021
1 월	14.1	14.2	14.1	13.9
2 월	12.3	12.1	12.9	13.4
3 월	13.4	13.5	13.6	14.9
4 월	13.4	13.7	13.4	14.5
5 월	14.6	14.3	13.8	14.8
6 월	14.2	14.2	13.9	14.8

덴마크:
1~3월 3%증가

노르웨이:
1~3월 5.3%증가

한국의 저출산 대책은 있는가?

- 세계 최저 출산율에 코로나 감염병까지 겹쳐 이중고
- 3년째 이어지는 합계출산율 0명대는 전대미문의 위기
- 내년에도 코로나 베이비 출생 감소할 우려
- 미래는 더 암울 해 진다.
- 세계 최저 출산율과 노인 인구 비율 세계 1위로 치닫는 한국은 인구 문제 해결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
- 우리의 인구 구조 문제점은 무엇이고, 누가 앞장서서 해결할 것인가

한국 인구구조 변화 심각

- 저출산 심화로 한국 총인구 감소시기도 앞당겨
- 영유아층 감소로 노인 인구 비율 빠르게 증가
- 앞으로 생산인구도 빠른 속도로 감소
- 사망>출생으로 인구 자연감소
- 초등학교 입학생(6세):현재 44만명에서 2026년30만명으로 31% 감소, 2027년 27만명으로 38%감소
- 군입대 신검연령(20세):현재 31만명에서 2026년 23만명으로 28%감소, 2040년 14만명으로 55%감소

출생아 수는 어떻게 변할까?

- 코로나로 올 1~5월 3.7% 감소
- 올해 예상 출생아: 25만9000~26만4000명
- 올해부터 2~3년 연속 감소해 사상 최저 출생아 수를 찍은 뒤 수년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① 올 혼인 건수 급감과 출산연기로 출생아 감소
- ② 출생아 수는 1명미만의 연속 출산율로 더 내려갈 수 없는 바닥점 한계
- ③ 그러나 인구 많은 91~95년생의 등장으로 조만간 출생아 수 상승 가능성

1991~1995년생이 출산의 마지막 희망

- 1991~1995년생은 이전의 1986~1990년생보다 41만명이 더 많고, 이후의 1996~2000년생보다 30만명이 더 많다.
- 이들은 베이비부머 2세대인 1979~1982년생처럼 앞뒤 연령층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갖고 있다. 이들이 얼마나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느냐에 한국 출산 미래가 달려있다.
- 이들이 26~31세로 올해부터 혼인 연령기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들의 혼인을 장려할 정부 대책이 시급. 다만 남성(187만명)이 여성(167만명)보다 20만명이 많아 어떤 시기보다 여성 숫자가 적은 세대. 짝을 찾지 못하는 남성이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

출생 감소 시대 대비한 정책적 대안은?

1. 국가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저출산 극복에 두라

- 인구 담당 장관 신설, 예산문제 최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로 임용.
- 여성부를 인구부로 개편
- 대통령 직속 인구문제해결을 위한 정부대책위원회 매월 개최
- 각 부처마다 인구정책과 신설해 인구부와 유기적 연계
- 교육부의 혼인과 가정 중요성 교과서 수록, 부부 공동체, 임신 출산 육아 교육 실시
- 자치단체별로 인구 대책, 지방 인구 정주화 방안 5개년 계획 마련

출생 감소시대 대비한 정책적 대안은?

2. 파격적인 임산부 우대정책 시행

- 10년마다 의무 육아휴직제(실임금의 70%보전)
- 예산은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앞당기고 초등학교 5년제로 조기 사회진출 방안 마련
- 초등학교마다 1년 코스 유치반 신설, 유치부 공교육화
- 기존 육아휴직제 보완
(예: 1년 육아휴직 사용자도 의무육아휴직 사용 가능)

출생 감소 시대 대비한 정책적 대안은?

3. 혼인 부부에 대한 대대적 혜택 부여

- 맞벌이 부부에 대한 세금 중과 문제 해결
- 부부간 상속, 증여에 대폭 세금 공제 혜택 부여로 혼인한 부부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 국가 파견 가정 보육 돌보미제 확대 운영
- 난임 치료 국가 책임제(국가 난임 병원 신설, 연령제한 해제, 자녀 원하는 가정에 최대한 지원)
- 건보의 임신출산 지원 카드 금액 대폭 인상

토 론 문

박 기 남 위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코로나 베이비, 출생감소 대안은 있다!

□ 출산감소(인구절벽), 예견된 미래

- 감사원 '저출산·고령화 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67년 3,689만 명, 2117년 1,510만 명으로 인구추계
- 합계출산률이 1.3 밑으로 떨어지면 인구의 자연복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출산률은 0.84명(2020년)으로 5년째 감소하고 있음
- 한국리서치 '30년후 희망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선결 과제'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제 분야에서 '저출산 고령화 해결'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29.0%에서 2021년 37.2%로 증가함

□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 스웨덴 인구정책 전환 성공 사례(김영미, 2021)

- 1930년대 스웨덴은 유럽에서 출산률이 가장 낮은 나라로서,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성, 심리적 불안, 가족 구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현재의 한국과 유사한 상황으로 시사점 유용함.
- 개인 상황, 주관적 가치 등 미시적 차원에 주목하면서도 거시적 차원의 향후 산업구조, 가족구조, 젠더관계 변화,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인구 담론 및 정책 모색
- 세 가지 핵심원칙에 기반 : ① 출산과 부모됨이 개인의 선택, 자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자발적 부모됨'의 원칙 ② 출산 감소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이 대체로 출생아 수 증가라는 양적 목표에 집중한 데 반해, '질적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는 '아동 삶의 질에 대한 사회투자 원칙 ③ 인구문제 접근에서 '성평등'을 핵심가치로 설정하여 일과 경력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노동권 보장

==> 인구, 출산 문제를 개인, 가족의 복지, 행복의 이슈로 접근하고, 인구정책을 전체 사회정책과의 유기적인 전체로 통합함으로써 전체 사회정책의 방향을 전환해감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추진방향

- 기본 관점의 전환 : ①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혁신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② 가족지원 투자와 사회구조적인 혁신의 균형적 접근과 실천 : 육아부담 완화, 일자리·주거 등 청년층 구조적 문제 대책 강화
-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개인의 권리 향유 보장 : ①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과 아동의 기본권 보장 ②포괄적 성·재생산권 보장, 생애주기에 따른 임신, 출산 의료지원 강화
- 인구구조변화 대응 : 세대간 통합,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 왜 한국의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것일까?

- 2020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청년세대들이 생각하는 결혼과 자녀, 행복’에 대해 30대 비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함.
- 비혼 청년 10명 중 9명이 결혼은 ‘선택’이라고 응답함. 향후 결혼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여성의 30%, 남성의 18%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응답함. 결혼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25.3%), ‘가부장제, 성불평등 문화 때문’(24.7%) 이라고 응답했으며, 남성들 중 절반은 ‘현실적으로 집 마련 등 결혼조건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서’(51.1%)라고 응답함. 여성들은 결혼제도와 성 차별 문제 때문에, 남성은 경제적 조건의 어려움 때문에 결혼을 꺼림.
-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상적인 자녀 수’에 대한 질문에는 2.12명이라고 응답한 반면, 실제로 ‘몇 명 낳고자 합니까?’라는 질문에 1.48명이라고 응답함. 자녀를 낳고 싶으나 현실적 제약(gap)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코로나 이후 출산률 증가하는 국가의 공통점은?

-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 일·생활균형 지원제도, 성평등 상위국가, 튼튼한 사회안전망

□ 가족의 시대가 지나가고 가족들의 시대가 왔다

- 혼인율의 감소가 곧 출산률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 독일의 사례 : 1995년 ‘제도’ 중심의 가족에서 ‘관계’ 중심의 가족으로 변화함. 혼인 신고하면 가족이 아니라 부모-자녀 2세대 생활공동체를 가족으로 규정. 자녀는 친생, 입양, 위탁보호아동 모두 포함(정재훈, 2021).

-

□ 출생 감소, 대안은 있다!

-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 결혼·출산해도 계속 일할 권리 등 자발적인 부모됨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데서 시작함. 원하지 않는 임신, 위험한 임신종결을 예방하여 원하는 시점에 안전하게 아이를 가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피임접근권 보장, 신뢰가능한 정보·교육 제공 및 상담·의료서비스 등 포괄적 지원
- 비혼, 기혼 난임자 등 낳을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및 관리체계 마련 : 비혼, 만혼에 따른 자연 임신 가능성이 줄어들에 따라 보조생식술 또는 인공생식술 등이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음. 난임 부부의 낳을 권리 보장 뿐 아니라 혼인 밖의, 또는 사유리 사례와 같은 비혼의 낳을 권리 보장, 더 나아가 비혼 여성들의 난자 냉동요구 등 생식 건강권을 둘러싼 법적, 윤리적 제도 및 지원 방향 정리
-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이 여성의 삶·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즉 일과 경력의 중단이나 위협이 없이 친밀한 관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삶을 보장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핵심임. 성평등하고 공정한 노동시장과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중요. 코로나 19로 도입되고 있는 재택근무, 유연근무제의 확산과 더불어 육아휴직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편적 적용을 위한 법제도 개정 등 필요. 올 상반기 협회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양육مام의 양육실태 결과에 의하면, 긴급상황시 보육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조부모, 친인척 69.3%, 배우자 14.7%로 85%가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공적 돌봄체계 이용은 3.5%에 불과한 현실은 저출산이 지속되는지 이유를 말해줌. 태어난 모든 아이는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생겨야 저출산의 악순환 고리가 끊길 것.
- 직장내 모성보호제도의 확실한 실행 : 최근 뉴스에 의하면, 직장 여성 4명 중 1명이 유산경험이 있다는 결과 나옴. 임신한 여성의 근로조건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더 고민해야 할 것은 없는지...
- 가족의 정상성을 넘어서 삶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 : 인구정책 구상을 가족이 아닌 ‘개인’에 주목하여, 정상가족 규범으로부터 개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가족 지원을 법적 혼인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산모들이 산전산후 진료서비스와 출산, 육아휴직 급여, 아동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양육 서비스 등 대상은 보편적으로, 지원은 소득계층에 맞게 선별적으로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족 지원
- 분업에서 협업으로 : 가족내 성별 역할 공유를 통한 민주적 가족관계를 위해서는 남성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가정내 양육과 돌봄 노동이 분담되어야 독박육아, 경력단절 등의 두려움 없이 임신, 출산 고려 가능할 것임.

- 스웨덴 인구학자 알바 뮈르달에 의하면, 국가의 적정 인구수 유지를 위해 중요한 것은 가족 관점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수를 실현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임. 인구정책을 전체 사회정책(교육, 일자리, 주거, 연금 등)과의 유기적인 전체로 통합함으로써 전체 사회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할 것임.

==>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담론의 전환은 이룸.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 실행과 실질적인 인식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혁과 기존 정책의 재구조화가 필요

토 론 문

이 윤 진 교 수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前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길: 내 아이, 우리 모두의 아이

1. 일가정 양립, 쉽지 않은 이야기

□ 합계출산율 0.92

- 2019년 기준,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1이 안되는 숫자
- 발표문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출산율은 더욱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저출산은 경제 뿐 아니라 향후 도시의 축소 및 소멸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문제

특히 지난해에는 출생아가 사망자가 보다 적어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인구 데드 크로스'까지 발생했다. 2020년 출생아 수는 사상 최초로 20만명대를 기록했다. 2002년부터 2016년간 40만명대가 유지됐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35만7800명) 30만명대로 떨어진 뒤 2020년(27만2400명)에는 3년 만에 2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올해도 20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5월 누적 출생아는 11만 5391명으로 1년 전보다 4443명(-3.7%) 적은 수준이다. 사상 최소가 예정된 상태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0만5100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상회하면서 연간 최초로 인구 자연감소도 발생했다. 올해도 5월까지 출생아 수가 11만 5391명으로 사망자(12만8215명)보다 1만2824명 적은 상황이다.

출처 : 뉴스웍스(<http://www.newsworks.co.kr>)

□ 육아휴직, 여성들만의 전유물?

- 2019년 기준 육아휴직 비율 조사에 의하면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보다 약 10배 정도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용직 부모 중에서는 여성은 18.5%, 남성은 2.2% 육아휴직 사용

【 기업규모별 상용직의 육아휴직 비율 】

(단위: %)

	2015		2017		2019	
	부	모	부	모	부	모
대기업	0.5	24.9	1.5	25.2	2.4	24.1
중소기업	0.2	11.7	0.5	11.5	1.1	12.4
소상공인	0.3	6.6	0.6	6.0	1.1	6.2
비영리	1.4	25.5	2.3	26.5	4.3	24.8

주: 만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상용직 전체 대상

□ 부모의 권리, 노동의 권리

- 과연 공보육만이 돌봄기능을 대체하는 것으로 쓰여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함
-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은 그 무엇과 대체 불가능한 시간들을 고려하여 정책을 설계하여야 할 것임

□ 어느 조직에 있느냐

- 대기업에 근무하는 자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자의 제도 이용 차이는 결국 내가 어느 조직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제도 활용도가 달라진다는 것
- 기업 복지, 인식이 일가정양립을 좌우한다는 것

□ 어느 정도로 양립?

-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것인지의 문제로 환원
- 단순히 일을 하는 시간,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분리가 명확히 되는지?
- 그 이외의 가사 노동 부담 등은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 독박육아라는 말이 없어져야 할 세상은 언제 오는지?

2. 돌봄,, 이대로 정답일까?

□ 영유아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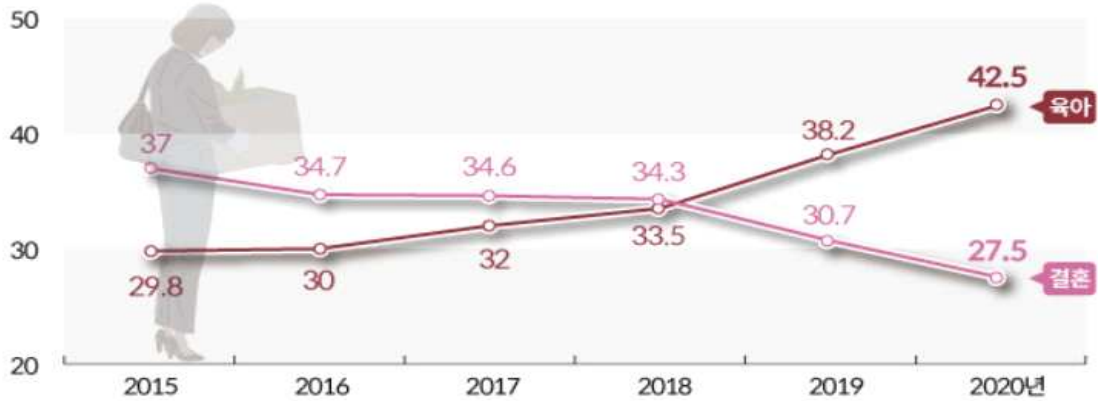
- 현재 공보육 비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40% 상회를 약속하였고, 자연스레 상향될 것임(저출산 영향)
- 어린이집의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할 것임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과정의 완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

□ 초등돌봄

-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입하면서 여성의 경력단절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음
-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력단절 여성 중 약 25% 정도가 7-12세 자녀를 둔 여성
- 현재 정책이 초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지? 그 실효성은?
- 문재인 정부의 온마을돌봄정책의 효과성은? 무엇이 정책수요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기업별로 초등입학 시 휴직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SK텔레콤이 대표적) 모두에게 사용될 수 있는 제도인지?

여성 경력단절 사유

단위: %



[자료=통계청] [그래픽=김아람 미술기자]

NEWSPIM

3. 낳은 아이 잘 기르자, 낳을 아이 대비하자.

□ 아동에 대한 질적 투자

- 현금지원만이 능사가 아님
- 현금지원과 서비스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효과성이 증대할 것
- 이때 중요한 것은 아동 수가 감소한다고 하여 아동에 대한 투자 총량을 줄이면 안 된다는 것임
- 예를 들면,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보육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이 아닌, 해당 총량을 어떻게 투자해서 질을 높일 것이냐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임

□ 부모에 대한 투자

- 앞서 살펴본 일가정양립,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저출산 정책의 핵심임
- 이때 중요한 것은 아동수당 등 아이를 위한 현금 지원, 부모를 위한 시간 지원,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 가족 개념의 재구조화 등이 동시에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 현재 많은 저출산 예산이 쓰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청년 정책 예산, 주택 관련 예산이 바로 저출산 예산이라는 공식 도출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

- 출산율이 1을 밑도는 것을 위로 끌어올리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생활의 질 높이기에 투자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저출산 정책을 펴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태어난 아동에 대한 투자가 결국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선회되어야 함

토 론 문

박 선 권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前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한국의 코로나 베이비 증가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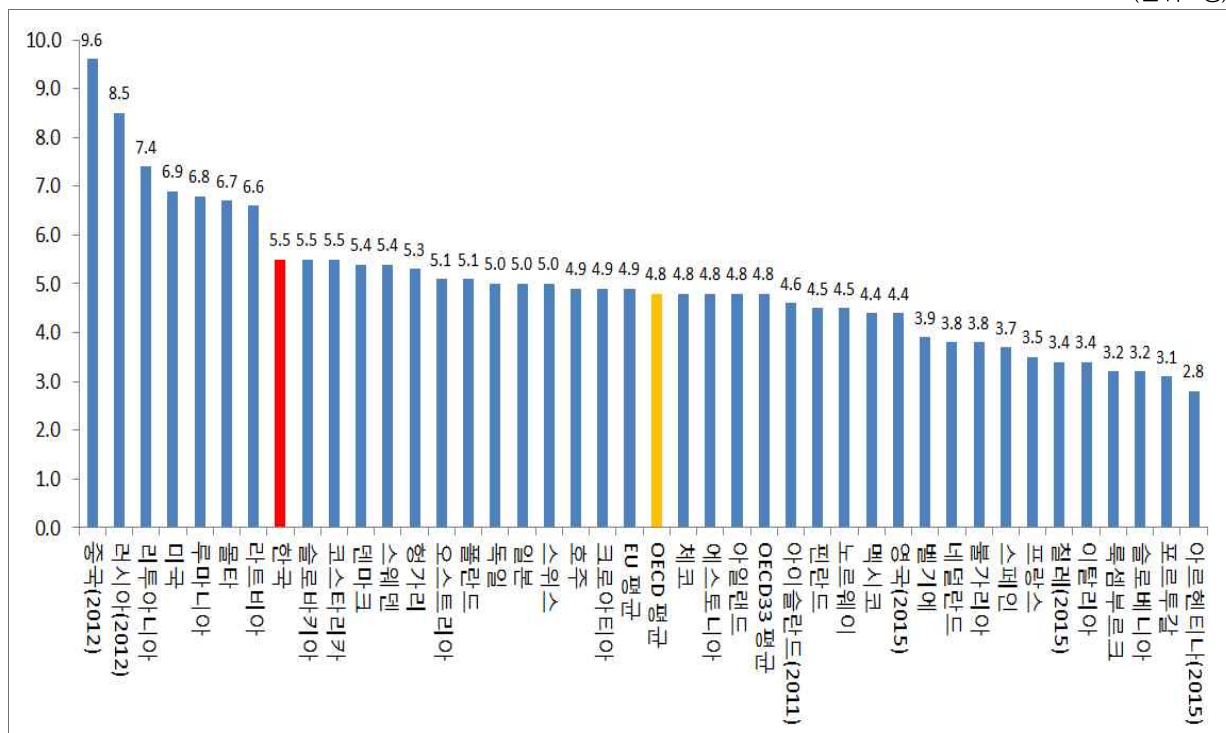
- 결혼과 출산을 삶의 위험(risk)과 비용(cost)으로 인식
 - 세계 최고의 고등교육 이수율
 - 혼인을 통한 출산이 대부분

□ 비혼, 만혼은 한국의 구조화된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 2016년 현재 한국의 조혼인율은 5.5건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음
- 2016년 현재 한국 여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30.1세로 OECD 평균과 유사했음
- 2016년 현재 한국 남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32.8세로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았음
- 2016년 현재 한국 여성의 출산시 평균 연령은 31.9세로 OECD 평균보다 높았음
 - 만산 수치는 1) 20대 출산율이 낮고, 2) 극히 낮은 비혼 출산율의 영향
 - 초저출산은 모든 연령집단에서의 낮은 출산율에 기인

[그림 1] 국가별 조혼인율(2016)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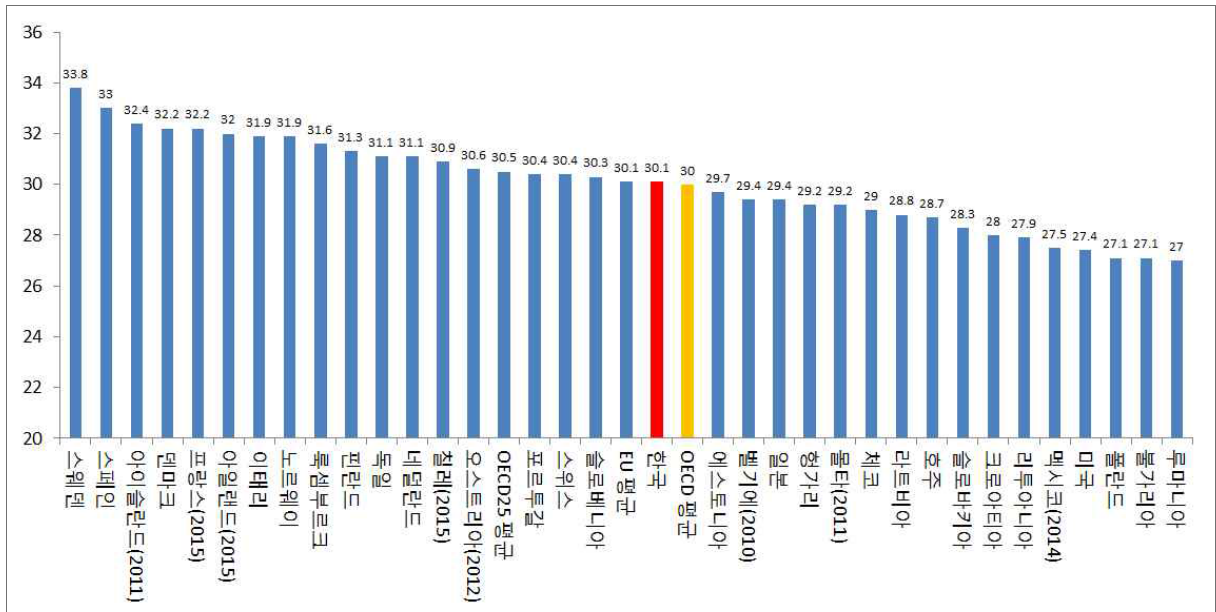


주: 조혼인율(CMR, *crude marriage rate*)은 연간 1000 명당 혼인 횟수. OECD33 평균은 OECD 33개국의 비가중평균(the unweighted average)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최종검색일 2019.4.22.

|그림 2| 여성 초혼 평균 연령(2016)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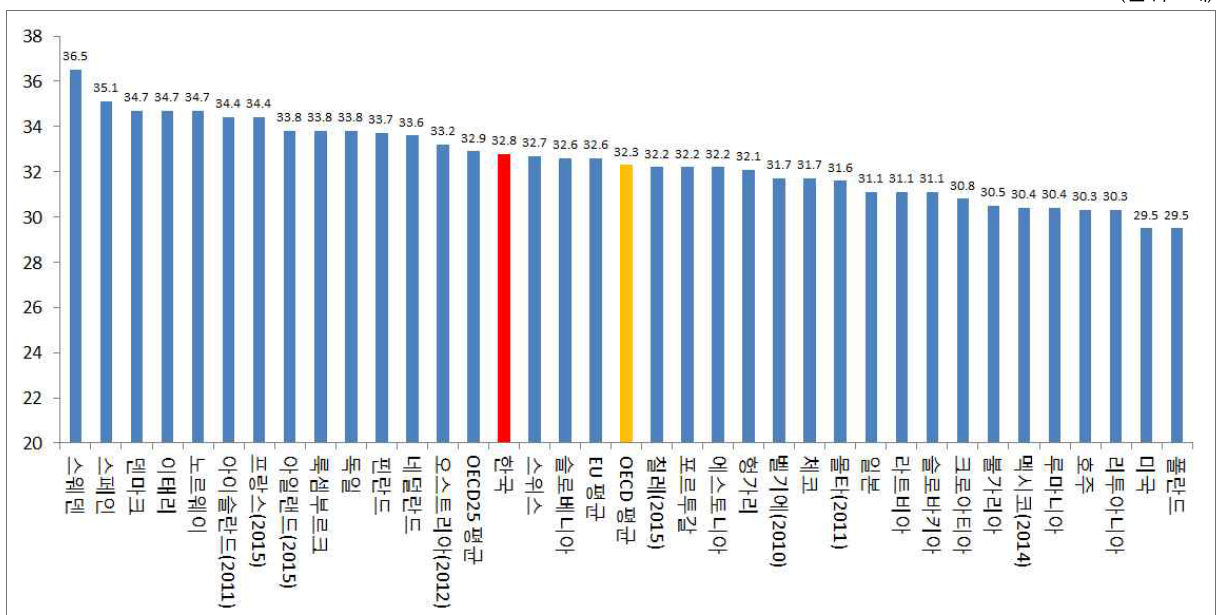


주: 영국은 동성 파트너 간 혼인이 포함되어 제외됨. 멕시코는 모든 혼인 연령 평균이고, 호주·미국은 초혼 중앙치(median) 연령임, OECD25 평균은 OECD 25개국의 비가중평균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최종검색일 2019.4.22.

|그림 3| 남성 초혼 평균 연령(2016)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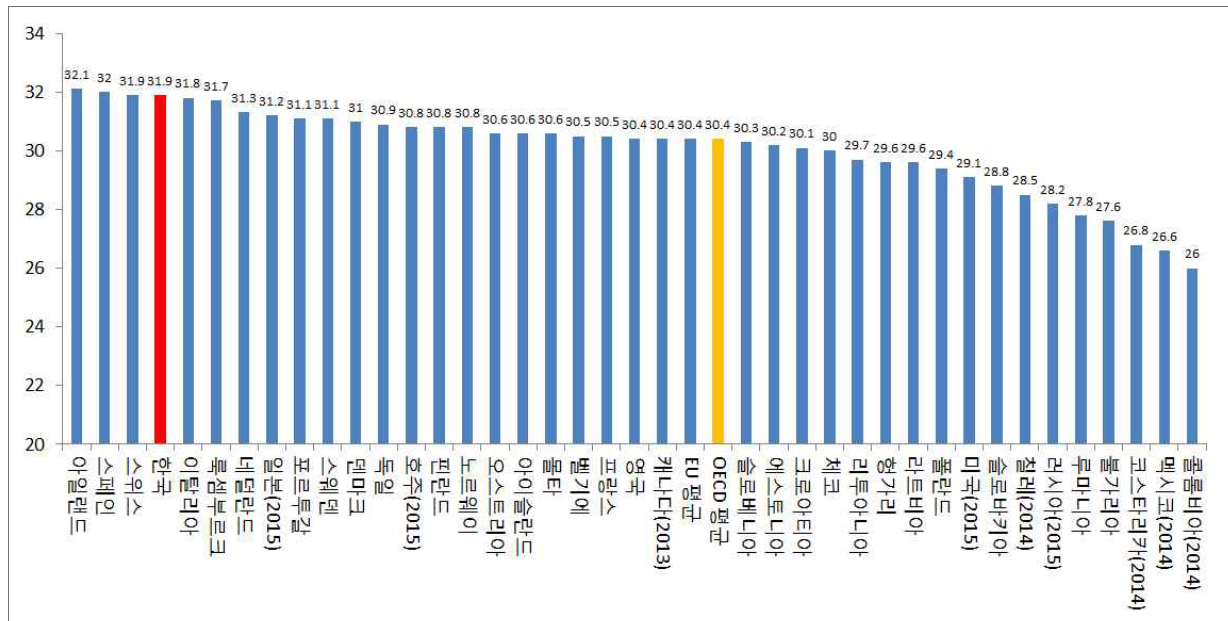


주: [그림 6]과 같음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최종검색일 2019.4.22.

|그림 4| 출산시 여성 평균 연령(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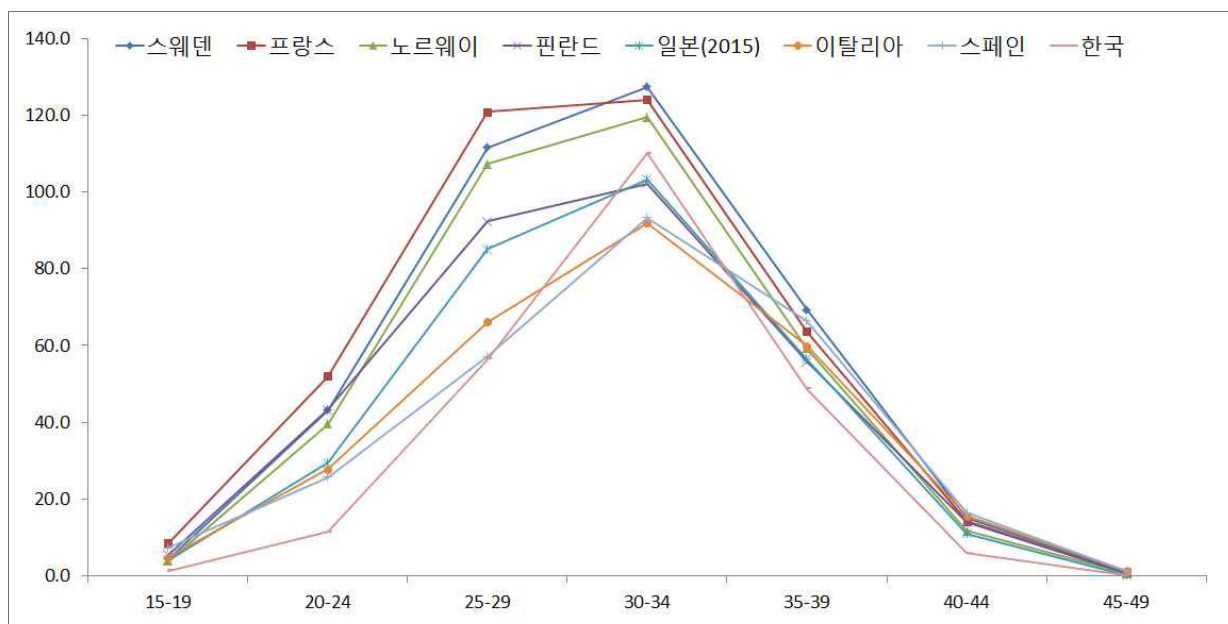
(단위: 세)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최종검색일 2019.4.22.

|그림 4| 주요국의 여성 연령집단별 출산율(2016)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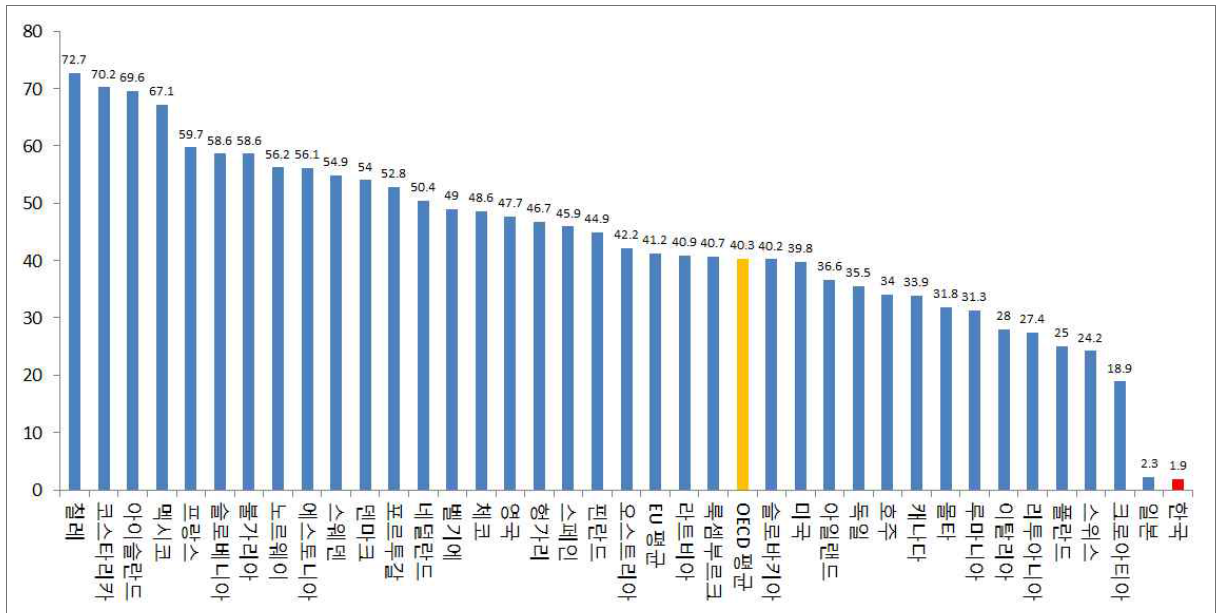


주: 연령집단별 출산율은 5세 연령집단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최종검색일 2019.4.22. 재구성

[그림 5] 비혼 출산 비율(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단위: %)



주: 비혼 출산 비율은 출산 시점 혼인 상태가 아닌 모든 출생의 비율. 호주, 일본, 한국 등의 자료는 혼외(ex-nuptial/out-of-wedlock) 출산, 즉 자녀의 부모가 혼인 상태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출생을 말함. 여타 모든 국가의 자료는 출생 당시 여성의 혼인 여부(marital status)가 혼인이 아닌 출생을 의미함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최종검색일 2019.4.22.

□ 저출산의 문제점

- 생산인구감소
- 수축사회: 보육, 교육, 국방, 노동, 사회보험 재정 및 노인복지 등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시스템 축소 및 재구조화가 사회적 과제가 될 것

□ 1990년대 전반 코호트가 기회

- IMF 외환위기 이전 70만명 대 출생
- 방향: 혼인·출산 양극화 해소
 - 2016년 현재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자 비율이 높았음¹⁾
 - 2007~2018년간 국민건강보험료 분위별 분만 건수는 소득에 상관없이 감소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저소득층에서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²⁾

1) 김유선,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LSI ISSUE PAPER 제8호, 2016.11.8. p.11.
 2)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분만건수”, 2019.4.

□ 정책방향 관련 고려 사항

- 의무육아휴직: 고용보험 재원 한계 명확
 - 부모보험 도입을 통한 별도 재원 마련이 필요
 - 인구담당 부처: 정책 개발·조정 기능과 권한이 관건
 - 혼인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관 교육의 효용성 미지수
 - 한국 청년들은 보육·교육, 취업, 결혼 등 생애과정 전체가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것을 태어나서부터 체득해 왔음
 - 한번 승자와 패자로 나뉘면 기회가 없다는 경험하에서 각자도생을 통한 경제적 안전의 확보가 유일한 가치이며, 이는 자산의 자녀도 겪게 될 미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 즉, 결혼·출산은 세대내, 세대간 모두의 리스크와 비용을 감내하는 선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들의 해소로 나아가야
 - 국민의 수요를 고려: 공급주의적 관점을 지양
 - OECD 평균 수준의 가족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통한 유인을 넘어서서 당사자가 결혼·출산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 향후 저출산 대응은 결혼·출산 유도형 출산·양육 지원 확대를 넘어 그간 회피되어 왔던 국민의 정책수요인 고용, 주거, 사교육 등에서의 양극화 해소가 병행되어야
-

[참고] 국민의 결혼·출산 정책수요

가. 미혼 남녀

□ 2015년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지원 정책수요는 고용과 주거였음³⁾

- 미혼남성의 경우 청년고용 안정화(32.6%), 신혼집 마련 지원(27.4%), 청년실업 해소(23.0%) 등이었음
- 미혼여성의 경우 청년고용 안정화(28.6%), 신혼집 마련 지원(24.1%), 결혼

3) 이삼식 외,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12. pp.400-403.

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제거(20.3%), 청년실업 해소(16.5%) 등이었음

□ 2015년 미혼남녀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수요는 교육과 주거였음⁴⁾

- 미혼남성의 경우 신혼부부대상 주택공급(26.2%), 자녀교육비 지원(21.5%), 자녀보육·유아교육비 지원(14.3%) 등이었음
- 미혼여성의 경우 자녀교육비 지원(17.1%), 신혼부부대상 주택공급(14.0%), 다양한 보육서비스(13.3%) 등이었음

나. 기혼 여성

□ 2018년 기혼여성(15~49세)의 결혼 지원 정책수요는 고용과 주거였음

- 기혼여성의 경우 신혼집 마련 지원(39.3%), 청년고용 안정화(20.8%), 청년실업 해소(20.5%) 등이었음⁵⁾

□ 기혼여성의 출산양육 지원 수요는 양육의 경제적 지원이었고, 주요 부담은 사교육비였음

- 2015년 기혼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출산양육 지원(영역)을 질문한 결과는 양육의 경제적 지원(45.9%), 일-가정 양립 지원(19.3%), 양육 인프라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14.1%) 등이었음⁶⁾
 - 2015년 출산양육 사회여건 1순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사교육비 경감(17.9%),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15.9%),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시설 확충(12.4%), 공교육 강화(8.5%) 등이었음⁷⁾
 - 2018년 출산양육 사회조건 1순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양육비용⁸⁾(양육비용부담 해소 14.8%, 사교육비 경감 3.5%),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15.3%),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14.8%), 경기활성화(고용안정)(8.6%), 교육체계 개편(7.0%), 공교육 강화(6.6%) 등이었음⁹⁾

4) 이삼식 외,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12. pp.446-448.

5) 이소영 외,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12. p.278.

6) 이삼식 외,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12. pp.318-319.

7) 이삼식 외,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12. pp.320-321.

8) 2015년 조사표에서는 사교육비 항목으로 2018년 조사표에서는 사교육비 항목 외에 양육비용부담 해소 항목이 추가되어 있음

9) 이소영 외,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12. p.280.

다. 신혼부부

- 2019년 신혼부부 가구가 가족계획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주거, 양육(교육)비용, 고용 등이었음
 - 전국적으로 1순위는 주거문제(37.6%), 양육(교육)비용(25.8%), 고용(22.9%) 등의 순이었음
- 가구주 성별로는 모두가 주거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남성은 양육(교육)비용과 고용을, 여성은 양육(교육)비용과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음
 - 즉, 남성은 주거문제(37.4%), 양육(교육)비용(26.0%), 고용(23.1%) 등이었고, 여성은 주거문제(49.5%), 양육(교육)비용(15.6%), 일가정 양립(14.6%), 고용(14.2%) 등이었음
- 경상소득 분위별로는 모든 분위에서 주거가 일차적이었고, 고용과 양육(교육)비용이 유사한 비중을 보였음
 - 경상소득 1,2분위와 3,4분위는 주거문제에 대해 각각 58.2%, 46.0%로 응답하여 저소득층일수록 주거를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토 론 문

김 충 환 과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前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실 행정관

1. 최근 출생 동향 분석

- 금년 5월 출생아수는 2.2 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8 백 명) 감소되는 등 금년 1~5월은 전년과 대비하여 감소세가 눈에 띄게 둔화

	'19년	'20년 (잠정)	'20년(잠정)					'21년(잠정)				
			1월	2월	3월	4월	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출생아 수 (명)	302,676	272,410	26,679	22,768	24,206	23,321	22,861	25,003	21,461	24,054	22,820	22,052
			119,834					115,391				
전 년 (동 월) 증감률(%)	-7.4	-10.0	-11.9	-11.4	-10.5	-10.7	-9.6	-6.3	-5.7	-0.6	-2.2	-3.5
			-10.9					-3.7				

- 최근 첫째아 감소폭이 줄어들고, 30대 후반~40대 초반 출산율이 높아짐
 - 30대 출산의 감소세가 줄고 있고, 40대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결혼 직후 출산하지 않고 늦추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짐작
 - * 결혼 후 출산까지의 평균 기간 : ('10) 1.8년 → ('15) 1.8년 → ('17) 2.0 → ('20잠정) 2.4년
 - ** 평균 초혼연령(세) : 男 ('00) 29.3 → ('10) 31.8 → ('20) 33.2 女 ('00) 26.5 → ('10) 28.9 → ('20) 30.8
- 2021년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0.03명 감소
 -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 25-29세는 2.7명, 30-34세는 2.5명 각각 감소하였으나 19/20년과 대비하면 감소폭이 크게 둔화, 35-39세는 0.1명, 40세 이상은 0.2명 증가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단위: 가임여자 1명당 명,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 명당 명)

	2018	2019	2020 잠정	2019.1분기	2020.1분기 잠정	전년 동기 차	2021.1분기 잠정	전년 동기 차
합계출산율	0.98	0.92	0.84	1.02	0.91	-0.11	0.88	-0.03
24세 이하	4.9	4.3	3.8	4.6	4.1	-0.5	3.4	-0.7
25-29세	41	35.7	30.7	40.2	33.8	-6.4	31.1	-2.7
30-34세	91.4	86.2	79	96.5	85.8	-10.7	83.3	-2.5
35-39세	46.1	45	42.3	48.8	45.4	-3.4	45.5	0.1
40세 이상	3.1	3.3	3.4	3.5	3.5	0	3.7	0.2

- 베이비부머 자녀세대(에코세대: '79~'92년생) 중 90년대 생이 30대에 진입하여 향후 5~6년간 출생아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 30대 초반(30~34세) 인구(만 명) : ('21) 334 → ('23) 354 → ('25) 367 → ('26) 372

** 출생아 수(만 명) : ('90) 65 → ('91) 71 → ('92) 73 → ('93) 72 → ('94) 72 → ('95) 71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19) 중 저위추계에 따르면 이러한 가임기 여성수의 증가로 출생아수가 '22년에 저점을 지나고 '28년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반등의 기회가 상쇄될지, 또는 반대로 코로나 19로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출산을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상반된 견해들이 있어 향후 면밀한 분석과 모니터링 필요
-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현 출생 추세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또한 MZ 세대의 취업난, 삶의 가치관 변화도 반드시 고려해야할 요소
- 결혼은 장기적으로 지속 감소하여 인구구조의 문제보다 비혼·만혼·사실혼 등 세대의식의 변화로 인한 결과로 접근 필요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커뮤니티 부재, 만남 단절 등 코로나19 이후 비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여성 대학진학률 및 고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결혼·출산 후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과 사회적 지지 형성이 중요

2. 초저출산 현상에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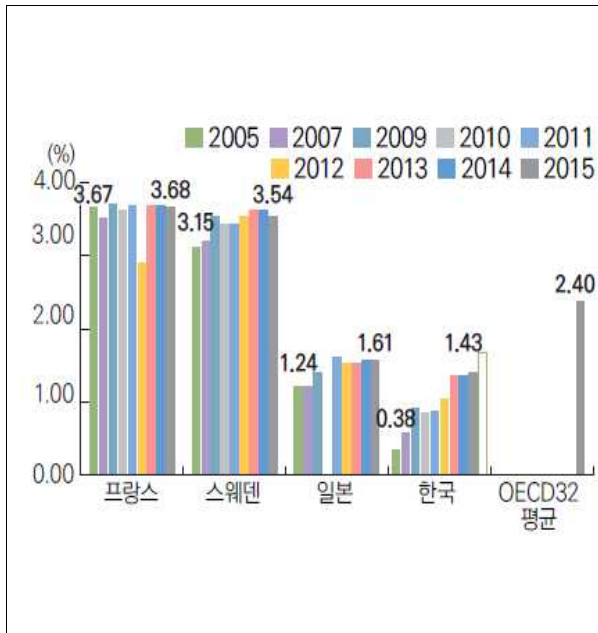
① 기본방향

- (완화전략) 출산을 반등을 위한 보육·양육 관련 가족지원 투자* 및 청년층 지원 확대
 - *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혼 부부 출산율이 '00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합계 출산율은 '00년 1.5명에서 '16년 0.73명 수준(실제 1.17명)까지 하락 예상(이철희, '18)
- (적응전략) 사회 영역별 조정*의 병행
 - * 노동시장 개혁, 교육 시스템 개혁, 성평등 구현 등 구조적, 문화적 대책 추진

< 참고 :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 현황 및 착시효과 >

- ◇ 과제(직접/간접지원), 예산의 성격(경상적/자본적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저출산 예산으로 일괄 합산하여 예산규모에 대한 착시효과 발생
 - ⇒ 국제비교가 가능한 아동가족지출 예산만을 기준으로 할 때, 경제규모 대비 투자규모가 매우 부족함에도, 대외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음
- 최근 5년간 총 234.2조* 규모로 발표되나, OECD 가족지출에 준하는 직접지원(현금+서비스+의료비)은 80.7조원(연 16조원 수준)
 - * 5년간 총 234.2조 : 저출산 분야 148.6조, 고령사회 분야 85.7조
- 가족지출(직접지원) 중 현금지원 비중('20, 33%)이 증가 중이나 OECD 국가('15년, 51%)에 비해서는 여전히 작은 수준

< OECD 주요국 GDP 대비 아동·가족지출 비중 >



< OECD 주요국 가족관련 유형별 구성 (2015) >



* 출처 : 한국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6)

② [추진전략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일·생활 균형 보장) 고용보험 사각지대(특고, 자영업자 등)·중소기업 재직자·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유연근무 확대
- (남·녀 동등한 경제활동 지원)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25), 초등방과 후 온종일 돌봄 확충(~'22년까지 53만 명으로 확대)

< '21년 중점 추진과제 : 영아기 집중투자('22년) >

- (영아수당 신설) '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 지원, 돌봄 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사용.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22년 도입, '25년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
- (첫 만남 꾸러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인상(60→100만원), 아동 출생 시 바우처(일시금) 200만원 신규 도입, 총300만원을 의료비·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

③ [추진전략 2]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혁신)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25), 그린스마트 스쿨 확대*,

산업수요를 반영한 대학 교육과정 운영(계약학과 등) 등

* 획일적인 학교 공간을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교과 과정과 연계한 공간제공 등 미래교육 지원과 지역사회 공유에 활용(~'25, 전국 노후 학교 2,835개동 목표)

○ (새로운 일자리 수요 대응) 미취업청년·경력단절여성·신중년 퇴직전문인력 대상 맞춤형 교육*, 취·창업 지원(고용장려금, 인턴십 등)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내 K-Digital credit 도입('21, 50만원), 디지털·그린분야 핵심실무인재 양성('21~'25, 18만 명),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 확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활성화

④ [추진전략 3]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사회적 논의와 합의 필요]

○ (연령 통합적 사회준비) 연령 기반의 획일적인 사회제도 개선방안 검토 등

○ (지역상생 기반 구축) 인구감소지역 선별 지원 강화 등

*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근거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6.1)

○ (사회 인프라 수급 불균형 단계적 조정)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교육인프라·군인력·주택 수급의 단계적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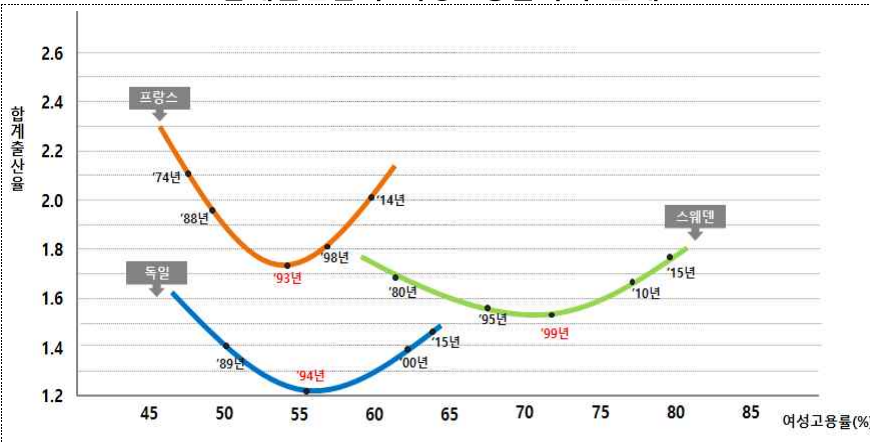
* 적정규모 교원 수급, 상비병력 대책,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빈집 재공급방안 마련 등

○ (사회보험 안정적 운영방안 검토) 연금건보장기요양보험의 수입지출 관리 등

[해외] OECD 고출산 국가: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 1970년대 이후(복지국가 수립 이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면서 초기에는 출산율이 하락하는 현상을 공통적으로 경험
 - 일(노동시장)과 돌봄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dual model)’ 성평등한 사회시스템으로의 변화,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해 2000년대 저출산 추세 반등
- 유럽 고출산국의 출산율 안정화에는 유아녀 가구의 소득지원과 육아부담을 경감하는 가족정책이 상당 영향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19)
 - GDP 대비 가족지출 비중(%): 프랑스 3.7%, 스웨덴 3.5%, 독일 3.1%(OECD 평균 2.4%)

< 합계출산율과 여성고용률과의 관계 >



< 출산율 변화 >

합계출산율	프랑스	스웨덴	독일
최저	1.66 (93)	1.50 (99)	1.24 (94)
'17	1.86	1.78	1.57
소요기간	24년	18년	23년

프랑스	▶ 전통적으로 인구정책 강조 ▶ 적극적 재정 투입을 통한 자녀양육 지원 ▶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 모든 아동 대상 : 유아환영정책(PJAE) - (기본지원) 임신·출산지원금 - (보충지원) 양육비지원, 직업활동보전 지원 ○ 자녀가 많은 가구 : 간접지원 - 가족수당 : 기본급여, 보충급여 - 세금 경감 : 가족계수 산정
스웨덴	▶ 적극적 여성 인력활용 추진 ▶ 양성 평등 구조 및 문화 확립 ▶ 일·가정 양립 + 공(公)보육 결합	○ 출산육아휴직 : 1인당 총 480일 - 아버지 할당제 : 90일 / 시간제 근무 가능 - 여성 휴가 : 10일 ○ 유치원(포르스콜라) - 1-5세, 전일제/시간제 (보육료 상한제) ○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 둘째 자녀부터 다자녀 아동 추가 지급
독일	▶ (과거) 카톨릭 문화 영향으로 성별 분업적 역할 규범 유지 ▶ (최근) 적극적 가족정책으로 전환	○ '05년 가족법 개정 (가족 지원) ○ '07년 부모수당(Elterngeld, 육아휴직) - 12개월 + 2개월(아빠의 달) - 소득대체율 67% ○ '13년부터 3세 미만 보육서비스 법적 보장

부 록

- ◆ 연구회 소개
- ◆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 공지사향
- ◆ 협력기관

■ 연구회 소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 설립목적 :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연구, 조사, 계몽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 연 혁 :

- 2009. 10. 15 창립
- 2011. 1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제 1237호)
- 2012. 10 법인설립허가 (경기도 제 2012-01-90호)
- 2013. 07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 등록
- 2014. 09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단체
- 2014. 1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보건복지부 제 196호)
- 2013~ 『제 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 시니어LIFE코디네이터 자격증 수여/보건복지부 승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록번호2015-001578)
- 2009. 10~ 분기별 복지 현안정책 토론회 개최
- 2014~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부스 운영 참가
- 2015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 2015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지원사업
- 2016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 통일부『통일박람회』참가-부스명: 통일이랑 복지랑 step by step!
 -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방송물 모니터링사업
 - 제7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운영
- 2017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지원사업 선정
 -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선정(보건복지부)
 - 제8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 하반기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선정
- 2018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선정
 -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 제 9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 및 조달전시회 컨퍼런스
- 2019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축제 부스 운영
 - 제5회 (그룹홈)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공감여행
 - 제5회 중장년세대 Begin 한마당(9.28)
 - 창립 10주년 기념 사회복지미래를 위한 Talk 콘서트
- 2020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 제6회 (그룹홈)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제주공감여행
 - 제6회 중장년세대 Restsrt 한마당
 - 제11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 2021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7년 연속)

■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 2021. 6. 16 (수)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제 :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주제발표자 : 김 태 기 명예교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토 론 자:

1. 김 주 섭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2. 이 재 모 교수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3. 김 대 광 청년 (취업후 퇴사, 창업/ 챗터서울 대표)
4. 이 형 준 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955> 글로벌경제신문_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0788/?sc=Daum>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1762 한국NGO신문_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93> 복지뉴스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3050 성남일보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91020598640301> 대한경제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700> 내외일보_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58> 백세시대 _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130000417> 뉴스핌 _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229533/> 매일경제 _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4> 실버아이뉴스

● 2020. 11. 26 (목)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제 : 고령사회의 노인자원봉사 및 코로나 이후의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자 :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 · 복지학과 / 고령사회연구소장)

토 론 자:

1. 박 양 숙 소장 (사)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2. 황 진 수 명예교수 (한성대학교)
3. 우 보 환 본부장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부)
4. 박 기 준 과장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기사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955> 글로벌경제신문_

<https://www.dailian.co.kr/news/view/940788/?sc=Daum> 데일리안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1762 한국NGO신문_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93> 복지뉴스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3050 성남일보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291020598640301> 대한경제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700> 내외일보_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58> 백세시대 _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130000417> 뉴스핌 _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1/1229533/> 매일경제 _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4> 실버아이뉴스

● 2020. 10. 08 (목)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주 제 : 국내외 노인인권 보호증진 활동현황과 노인단체의 역할

주제발표자 : 박 영 란 교수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토 론 자:

1. 한 정 란 교수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한국노년학회장)
2. 박 노 숙 회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관장)
3. 백 승 민 박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4. 이 동 우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www.chosun.com/national/people/2020/10/08/YI2ZT44U2BA27K5ZDXK4QYIHOQ/?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조선일보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53> 복지연합신문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32331/> 매일경제

<http://m.ngonews.kr/120618> 한국NGO신문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1010000108> 뉴스핌

http://m.getnews.co.kr/view.php?ud=EJ0815060348774ecd436290_16 글로벌경제신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925948> 데일리안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47> 백세시대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0110939375520029> e대한경제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859 성남일보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211> 충청일보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84> 실버아이뉴스

● 2020. 09. 24 (목)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제 : 위드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

주제발표자 : 이 기 효 교수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토 론 자:

1. 신 영 석 선임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2. 정 형 선 교수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연세대의료복지연구소장)
3. 이 태 윤 기자 (중앙일보 복지행정팀)
4. 홍 선 미 교수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988321/> 매일경제

<https://news.joins.com/article/23879571> 중앙일보

<https://www.dailian.co.kr/news/view/922819/?sc=Daum> 데일리안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018> 복지연합신문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7219> 충청일보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20092310485232144ecd436290_16 글로벌경제신문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924001066> 뉴스핌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871> 병원신문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339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나뉴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206> 청년의사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249511> 약업신문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2799 성남일보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8> 실버아이TV/NEWS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0423 한국NGO신문

● 2020. 07. 21 (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 제 :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

제 1주제: 기본에서, 기본소득제를 생각한다.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3가지 이유

주제발표자 :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오 건 호 공동위원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제 2주제: 한국복지국가 발전, 사회보장의 강화로 풀어야

주제발표자 : 양 재 진 교수 (연세대 행정학과/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소장)

토 론 자: 1. 윤 홍 식 교수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2. 신 성 식 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

개 회 사: 김 상 훈 국회의원

축 사: 차 흥 봉 前보건복지부 장관

격 려 사: 이 갑 산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

1부 사회: 조 중 근 회장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95998940202665018>전기신문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9225한국NGO신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906731?sc=Daum>데일리안

http://www.snlibo.co.kr/sub_read.html?uid=42548성남일보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073>경인매일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839>내외일보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42>복지연합신문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20000980>뉴스핌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12805>이로UNET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953>한국정책신문

● 2020. 06. 3 (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 제 :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주제발표자: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과장/복지대학원 주임)

토 론 자:

1. 이 진 한 기자 (동아일보 의학전문)

2. 사공 정 규 교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3. 공 선 희 전문연구위원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4. 임 강 섭 팀장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1부 사회: 김 기 영 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부 좌장: 이 정 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김 상 훈 국회의원

협력단체: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사)서울시보건협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지난 6월 3일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 3)복지 TV 주소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ld=34414&index=942&gotopage=4

복지TV: <https://tv.naver.com/v/14221827>

※관련 언론 기사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91324954199726018> 전기신문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190> 백세시대신문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73> 농촌여성신문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8585 한국NGO신문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ASM/323188/view> 농민신문
<http://sundaytimes.kr/View.aspx?No=864001> 선데이타임즈
<https://www.dailian.co.kr/news/view/895050?sc=Daumlogo> 데일리안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837> 경인매일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795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나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083> 의학신문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53431> 메드포뉴스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2006031526242324ecd436290_16 글로벌경제신문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830> 내외일보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31> 복지연합신문

● 2019. 11. 7(목)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주 제 : 사회복지 전문가가 말하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현 좌표는?

토크발표자:

1. 차 흥 봉 대표이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전 보건복지부 장관)
2.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제 9.10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3. 성 규 탁 교수 (미국남가주대학교 석좌교수/ 글로벌 문화실천나눔포럼 상임대표)
4. 조 성 철 이사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설립명예 이사장/ 제 17.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1부, 3부 사회: 강신성 박사

2부 토크콘서트 진행: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fnewstv.com/news/newsview.php?ncode=1065590229774209> 파이낸셜경제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11116168042040&outlink=1> 돈이 보이는 스페셜 뉴스 Money S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4935 한국NGO신문
<http://www.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5735> 충청일보
<http://www.dailian.co.kr/news/view/841945> 데일리안
<http://www.ngtv.tv/news/articleView.html?idxno=72889> 엔지티브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73518309189542096> 전기신문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26> 복지연합신문

● 2019. 07. 17(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 제 : 포용적 복지 정책과 지속가능성

주제발표자: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토 론 자:

1. 조 중 근 교수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 신 소 정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치매전문재활학과 학과장)
3. 김 동 섭 논설위원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63944931183318035> 전기신문
http://www.wngo.kr/sub_read.html?uid=112406 한국NGO신문
<http://www.focus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79> 포커스투데이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124572> GV글로벌뉴스통신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881> 백제시대신문
<http://www.dailian.co.kr/news/view/811721/?sc=naver> 데일리안
<http://www.nw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78> 내외통신
<http://www.bo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44> 복지연합신문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5> 실버아이뉴스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www.gukji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7906> 국제신문

● 2019. 05. 09(목)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노인연령 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주제발표자: 정 순 돌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1. 김 미 령 교수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장)
2. 이 상 이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3. 황 남 희 연구의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news.v.daum.net/v/20190509143641930?f=o>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190509143644931?f=o>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051011178029947&outlink=1> 머니S
http://www.wngo.kr/sub_read.html?uid=111052 한국NGO신문
<http://www.dailian.co.kr/news/view/794496> 데일리안
<http://www.100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35> 백세시대신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38> 복지연합뉴스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5> 실버아이뉴스
<http://www.ngonews.com/news/article.html?no=13751> 시민운동연합신문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58086391179232018> 전기신문
http://www.snibo.co.kr/sub_read.html?uid=40346 성남일보

● 2018. 10. 16(화)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제 1 주제 : ‘노인 자살률 낮출수 없나?’
-대인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자: 현 명 호 교수(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토 론 자: 양 두 석 교수(안실연 자살예방센터장)

제 2 주제 : ‘한국 노인의 고령화 과정에서의 자살 위기진단’
-나이 들에 대한 사회적 통증과 배제

주제발표자: 박 지 영 교수(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김 종 래 대표(복지연합신문)

1부 사회 : 문 승 권 박사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조 성 철 (前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복지TV, 백세시대신문, 한국고령화산업포럼, 생명연

● 2018. 05. 02(수) 국회의원회관 제 3 간담회의실

주 제 : ‘정치제도의 개혁, 사회복지발전에 왜 필요한가?’

주제발표자: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사)좋은나라 연구원 이사장)

토 론 자:

1. 양 재 진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행정학과/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2. 정 종 훈 기자 (중앙일보)
3. 노 대 명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부 사회: 이 진 박사 (국회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2부 사회: 김 진 학 박사 (본 연구회 이사/ 전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 2017. 10. 17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과 건강 -장기요양보험과 중장년 실업대책 및 재교육-

제 1 주제 :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선진적 운영방식 모색

주제 발표자 : 선 우 덕 명예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서 동 민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김 동 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조선일보)
3. 유 승 호 교수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성북구치매지원센터장)

제 2주제 : 중장년 실업대책과 재교육운영방식 모색

주제발표자 : 김 영 생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토론자 :

1. 한 국 은 초빙교수 (송실대학교)
2. 최 상 덕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3. 지 은 정 부연구위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좋은나라연구원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2017. 06. 29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기조 발제 및 좌장: 노인복지정책 방향: 고령인력 참여복지(Smarter Ageing)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원장

제 1주제 : 사회복지서비스 과제: 복지체감도와 현실성

주제발표자: 김 미 혜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 2주제 : 문재인정부의 노인 건강과 돌봄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과제

주제발표자: 전 용 호 교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 3주제: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복지재원 조달방안

주제발표자: 김 재 진 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자치부

● 2017. 02. 23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프리미엄 특강 1. 한국 복지정책의 효율성-균형의 길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프리미엄 특강 2. 한국사회복지 미래와 과제

- 김 진 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 최 :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2016. 12. 02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위기의 한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 1주제 : 일과 빵의 균형개혁

주제 발표자 : 정 경 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토론자 : 김 도 형 (한림대학교 겸임교수)

제 2주제 : 특권과 반칙없는 공정사회

주제 발표자 : 고 재 방 (전 교육부 차관보)

토론자 : 최 영 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1, 2 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공 동 주 최 : 리더십한림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6. 11. 24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2016 청소년유해방송물모니터링사업 결과 보고 겸한 토론회

주제발표자 : 성 윤 숙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론자 :

1. 김 경 수 대학생(단국대학교 경영학과)
2. 최 옥 주 교수(건국대학교 영육아보육학과)
3. 박 열 규 강사(경민대학교 효충교육원)
4. 박 찬 균 편집국장(복지연합신문)
5. 한 병 재 감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소)
6. 양 혜 지 간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 회 : 박미출 원장(한국정책연구원)

후 원 : 여성가족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6 .10.26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고령화시대의 보건의료 과제와 정책제안

주제발표자: 이 진 석 교수 (서울대 의대)

토 론 자:

1. 이 진 한 차장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2. 정 순 둘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 은 자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보건의료정책연구실)
4. 최 기 춘 실장 (건강보험공단 보험정책연구실)

후 원 : 행정자치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6. 06. 21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대안

발제 1 : 신 성 식 기자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부국장)

발제 2 : 이 연 숙 교수 (연세대학교 주거복지연구단 단장)

패널 :

1. 박 신 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2. 구 혜 영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 재 만 과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부 사회 : 고 은 지 박사(본 연구회 이사/ 어린이집 원장)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e-run TV인터넷 생방송, 데일리안, 한국 NGO 신문 외 5개 언론보도

● 2016. 02. 03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공동주최: 이주영의원실

주 제 : 중앙-지방간 복지재정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주제 발표자 : 류 진 석 교수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1. 신 성 식 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논술위원)
2. 김 태 일 교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3. 천 우 정 심의관 (국회사무처 행정법제)
4. 박 인 환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5. 고 경 환 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축 사 : 김 무 성 새누리당 당대표

서 상 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김 득 린 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송암복지재단 이사장

1부 사회 : 조 명 숙 교수(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황 명 진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 국회방송, 한국정책방송 중계. 성남일보. e-runtv 인터넷 생중계
- * 중앙일보 등 다수 언론에 노출 됨

● 2015. 10. 22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현황과 제안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김 주 섭 선임연구위원 (한국고용노동연구원)

토론자 :

1. 이 준 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김 정 태 센터장(서울시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3. 김 동 준 센터장(전경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4. 정 양 범 부장(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센터장)
5. 이 수 민 (국민연금서울북부지역본부 본부장)

축 사 : 서 상 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최 옥 주 (본 연구회 부회장/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2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5. 7.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 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정 경 희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토론자:

1. 김 현 수 박사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팀장)
2. 이 상 철 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3. 김 경 록 소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축 사 : 김 영 래 현 아주대 명예교수/ 전 동덕여대 총장

조 성 철 본 연구회 고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1부 사회 : 고 은 지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협 찬 : 국민연금공단

*** 연합 외 12개 언론 기사

● 2015. 2. 26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중심으로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

주제 발표자 :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고 수 석 연구위원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2. 유 근 춘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 은 주 소장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전문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소)
4. 김 원 섭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5. 은 성 호 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과)

축 사 : 유 지 수 총장 (국민대학교)

1부 사 회 : 조 명 숙 교수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 회 :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4. 10. 22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김 진 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 미 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1.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2. 최 진 봉 교수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3. 유 근 형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축 사 : 박 범 진 이사장 (미래정책연구소/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고문)

사 회 : 김 혜 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014. 6. 20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주제 발표자 : 황 명 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 미 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1. 양 점 도 교수 (한국복지행정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교수)
2. 구 종 회 석좌교수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3. 양 성 근 회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4. 권 오 영 변호사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5. 이 동 우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축 사 : 최 성 균 회장 (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사 회 : 김 준 경 교수 (남서울대학교)

● 2014. 4. 30 토론회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관 501호

제 1 주제: '저출산 원인과 대책'

주제 발표자: 양 찬 희 과장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제 2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

주제 발표자: 이 삼 식 박사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제 3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 및 일.가정 양립정책'

주제발표자: 도 미 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남서울대학교 교수)

좌 장 : 김 한 곤 회장 (한국인구학회/ 영남대학교 교수)

토론자:

1. 박 미 숙 과장 (천안시 여성가족과)
2. 김 태 희 교수 (백석문화대 /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장)
3. 이 명 숙 교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4. 이 은 하 분과장 (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가정분과)

축 사 : 공 정 자 총장 (남서울대학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천안시, 남서울대학교

후 원 : 보건복지부

● 2013. 11. 14 (목)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주제 발표자 : 강 명 순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빈관퇴치회)

토론자:

1. 박 병 현 교수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이 태 진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3. 서 병 수 소장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 영 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김 혜 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국민연금공단

● 2013. 7. 5 (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주제 발표자 : 안 상 훈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토론자 :

1. 김 정 근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2.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이 창 곤 소장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4. 유 종 일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5. 허 재 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본 연구회 고문
 오 영 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정 윤 경 소장 (말샘/글샘언어교육연구소/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후 원 : 현대자동차

● 2013. 3. 7(목) 사단법인 허가 및 창립 3주년기념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주 제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자 : 허 준 수 교수(송실대 사회복지학부/경실련사회복지위원장)

토론자 :

1. 신 성 식 기자 (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
2. 정 은 상 님 (일반시민패널공모 선정)
3. 현 진 권 소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4. 김 동 열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수석연구위원)
5. 김 명 훈 박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강남세브란스병원사회사업팀장)
6.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 성 호 행복세상 이사장(전 법무부장관)

김 영 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 제 세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축시낭송 : 정 윤 경 (본 연구회 운영위원)

1부 사회 : 도 미 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후 원 : 국민건강보험

● 2012. 10. 25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주제 발표자 : 신 영 석 부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김 동 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2. 이 준 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3. 조 중 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4. 박 민 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5. 김 선 희 한노총 사회정책국장
6. 윤 철 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축 사 : 김 정 례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 양 근 강남대학교 부총장 /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홈페이지

● 2012. 6. 26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주제 발표자 : 이 준 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신 인 석 교수 (중앙대 경영학과)
2. 이 의 영 교수 (경실련 전 상집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3. 김 광 기 경제선임기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축 사 : 심 윤 종 총장(前 성균관대학교 / 국민희망포럼 이사장)

임 성 택 총장 (그리스도대학교)

1부 사회 : 진 석 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미래정책연구원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2. 3.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주제 발표자 :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박 미 출 (일반시민토론자 신청공모자에서 선정)
2. 허 준 수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송실대 사회복지학과)
3. 이 정 한 과장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4. 박 기 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본 연구회 이사)
5. 류 기 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 인 복 회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구 본 홍 사장 (cts기독교TV)

최 란 이사장 (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1부 사회 :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고용노동부, CTS기독교TV

협 찬 : 대구은행

*** 연합, 뉴시스 및 5개 언론 기사

● 2011. 12. 20 창립 2주년 검한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 봉사하는가?—나눔 주제 및 선호에 대한 이해

주제발표자: 강철희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1. 강 학 봉 사업본부장 (사회공동모금회)
2. 임 혜 성 팀장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
3. 곽 대 석 사무국장 (cj 나눔 사무국)
4. 김 현 옥 회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5. 안 명 옥 前국회의원/나눔공동체

축 사 :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고문)

김 원 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 영 숙 (전 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석 말 숙 교수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보건복지부, IBK기업은행, CTS기독교TV

축 가 : 소프라노 이윤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Memory'(추억), <캣츠>

*** 연합 및 언론사 6기사보도

● 2011. 9. 2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주제발표자 : 고 영 선 연구본부장 (한국개발연구원)

토론자 :

1. 박 용 오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 홍 백 의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김 재 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4. 장 상 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선무

축 사 : 심 윤 중 前 성균관 대학교 총장/국민희망포럼 이사장

1부 사회 : 박 서 영 교수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박 기 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본 연구회 이사)

후 원 : SK사회적기업지원단

*** 뉴시스 및 연합 등 5개 언론사기사

● 2011. 6. 14 토론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주제 발표자 : 김 용 하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김 미 혜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2. 이 기 영 단장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 총괄)
3. 우 재 룡 소장 (삼성생명은퇴연구소)
4. 최 용 민 님 (베이비부머해당 토론자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축 사 : 김 성 이 前 보건복지부 장관

조 성 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회장

오카리나 특별연주 :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진 석 범 교수 (동서울대 실버학과)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삼성생명, 한국경제신문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뉴시스 및 6개 언론사 기사 게재

● 2011. 2. 1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주 제 : 저출산대책변화의 합의와 향후과제

주제발표자 : 이 삼 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토론자 :

1. 정 영 훈 과장 (대통령직속기관 미래기획위원회 사회복지정책과)
2. 도 미 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3. 안 명 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17대 국회의원)
4. 류 기 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축 사 : 진 수 희 보건복지부장관

차 흥 봉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前 보건복지부장관)

오 영 숙 총장 (前세종대총장)

축 가 : 장 선 주 (바리톤). 이동형(테너)

1부 사회 : 도 미 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보건복지부,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롯데백화점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데일리안, 뉴시스, 뉴일리, 조선일보

● 2010. 10. 01 토론회 성남시청 3층 대회의실

주 제 :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뒷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주제 발표자 : 최 성 재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토론자 :

1. 나 임 순 교수 (백석대학교)
2. 신 영 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3. 곽 순 현 서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4. 김 영 진 회장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축 사 : 차 흥 봉 前 보건복지부 장관 (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대회장)

1부 사회 : 박 기 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성남시,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 2010. 07. 12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자 : 정 무 성 원장 (前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위원)

토론자 :

1. 박 현 준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소장)
2. 김 재 춘 정책국장 (아름다운가게)
3. 정 태 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4. 박 찬 민 총괄실장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5. 윤 준 현 대표 (주)에이스푸드
6. 모 동 희 대표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에비사회적기업)

축 사 : 오 영 숙 전 세종대 총장

축사문 보내주신분 : 오 세 훈 서울시장,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1부 사회 : 이 승 훈 교수 (국제대학교)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0. 02. 25 토론회 성남 신청사 대강당(온누리관)

주 제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주제 발표 : 백 종 만 학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토론자 :

1. 진 석 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2. 장 향 만 사무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
3. 이 애 련 교수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4. 장 윤 영 도의원 (한나라당)
5. 지 관 근 시의원 (민주당)

축 사 : 장 석 권 前 단국대 총장

김 경 우 회장 (성남시 사회복지연합회/을지대 교수)

● 2009. 12. 10 오전 11시, 창립기념 제 1차 토론회

주 제 : 미래한국 복지건설을 위한 신구상

주제 발표자 : 강 욱 모 교수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김 병 숙 교수 (건국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2. 김 창 남 교수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박사)
3. 조 순 태 소장 (강남성폭력상담소, 한국사회문제연구원)
4. 정 무 성 교수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축 사 : 박 범 진 前 총장 (한성디지털대학교/ 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 공 지 사 항 ■

1. 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공감여행

-일시: 2021년 10월 22일(금) ~ 24일(일)

-장소: 전남 신안

2. 토 론 회

-일 시: 2021년 9월 15일(수) 오후 2시 30분

-장 소: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 제: 차기 정부의 복지: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복지플랫폼이 필요하다.

-주제발표자: 김 원 식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토 론 자 :

1) 장 영 신 정책연구실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박 영 용 회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3) 김 광 병 교수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인천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4) 김 은 하 센터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센터)

5) 이 상 철 실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

3. 토 론 회

-일시: 2021년 10월 말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4. 힐링등산 & 토크콘서트 & 장기자랑

-일시: 2021년 11월 3일(수)

-장소: 양평용문산 야외공연장

5. 토 론 회

-일시: 2021년 11월 10일(수) 오전 11시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주제: 복지포폴리즘, 어떻게 막을 것인가?

-주제발표자: 김용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 제9,10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6. 토 론 회

- 일시: 2021년 12월 10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제발표자: 최 군 교수(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아래 주소를 클릭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1) https://www.youtube.com/channel/UCVqg_WH11FaBCAx-KZ3lnKg 유튜브 주소

2) www.sswkorea.org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

3) 예약된 Zoom 회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Zoom 회의 참가 <https://us02web.zoom.us/j/9959424971> 회의 ID: 995 942 4971

■ 협 력 기 관 ■

유한대학교 (총장 이 권 현)
 사회안전범국민포럼 (상임대표 백 봉 현)
 사)화순군 귀농귀촌정보센터 (센터장 전 승 규)
 사)한국사회교육복지회 (대표 최 용 희)
 사)한국유스호스텔 연맹 (총재 임 성 준)
 서울문화예술 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학과장 조경훈)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회장 성 규 탁)
 사)여성자원금고 (이사장 김 근 화)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박 춘 선)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 강 경 아)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코칭학과 (학과장 도 미 향)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학과장 강 현 정)
 리더십 한림원 (원장 정경배)
 휴먼서비스아카데미 (원장 최 은 미)
 대한민국리더스포럼: 배려와 섬김 (회장 박 창 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 연 보)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회장 김 광 훈)
 비)아동안전위원회 (회장 이 제 복)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 조 중 근)
 한국사회봉사연합회 (회장 이 진)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 후원계좌

1005-702-640482(우리) 예금주: 사단법인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구성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silent@hanmail.net 070-8793-5202

●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4.10.22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2015.2. 26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2015.7.9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2015.10.22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 위한 일자리정책의현황과 정책제안』 토론회자는 국립중앙도서관 요청으로 도서관법 제 20조근거로 보존 ,전수, 이용 되고 있습니다.

● 2020년 6월 3일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소 3)복지 TV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1)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www.sswkorea.org

2)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Id=34414&index=942&gotopage=4

3)복지 TV <https://tv.naver.com/v/14221827>

코로나 베이비, 출산감소 대안은 없나?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